



경제도 살리는 템플스테이

‘한국시장’ 연등 불빛처럼 피어오르길...

촛불 기원을 하고있는 참가자들. 이들은 한국의 불교 문화에 감탄하면서 그런 문화만큼 한국경제도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구미공단, 외국기업CEO 투자설명회...직지사서 사찰체험

“구미시가 한국의 현대산업이 태동한 곳이라는 느낌을 준다면 직지사는 아주 오랜 문화와 정신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투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오랜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면서 최첨단의 개발을 이끌어가는 구미의 정신을 모든 세계가 배우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 홀도르즈: B.Khuldorj, 주한 몽골 대사관 상무관)



9살 동준이가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차를 달여 올리고 있다.

그들에 '잊을 수 없는 도시' 심어주자

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폴란드·독·프랑스 등 주한 외국대사관의 외교관과 CEO 16명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직지사에서 특별한 하루를 체험했다.

경북 구미시(시장 김관웅)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CK)의 후원으로 구미4공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지사 템플스테이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구미시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갖는 행사다.

“비즈니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최고의 기억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직지사 템플스테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인센티브를 겪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중 구미시는 직지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절대 잊을 수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한 셈입니다.”

작년 구미시가 개최한 투자설명회의 성공을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변정환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발우공양 '눈 감고 꾸욱~ that's good'

28일 구미 센츨리호텔에서 구미4공단 투자설명회를 듣고 구미공단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구미4공단 투자현장을 둘러본 참가자들은 오후 5시경 직지사 일주문에 들어섰다.

“Beautiful!” “Great!”
산사체험에 대한 설렘으로 상기된 참가자들은 연신 심호흡을 통해 가을 산사를 빨아들이며 주위를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다. 드디어 방사가 배정되고 수련복이 주어졌다. “다닐 때는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아야 합니다. 법당을 들어갈 때는 중앙을 피해 들어가세요.”

간단한 사찰예절 안내와 함께 산사체험이 시작됐다. 입제식에 이은 발우공양시간. 처음 보는 발우도 신기하고 예법도 특이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발우공양의 절정은 그릇 씻은 물을 마셔야한다는 것.
“김치 한 조각으로 그릇을 깨끗이 닦습니다.”
정관 스님의 안내에 따라 그릇을 깨끗이 닦았다.
“이제 이 물을 마시세요.”
서로 둘러보며 응성거린다. “이 물을 마시라나...”
스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모두 눈을 꼭 감고 물을 쪽 들이켰다. 순간 유일한 꼬마 참가자 스테판(Steffan, 7)이 발뚧 일어나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한마디 한다. “잘했어요(That's good!)”
스테판의 칭찬에 설법전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한국불교문화가 하나씩 하나씩 모습이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전해졌다.

의젓한 '꼬마선비' 다도 시연에 감동...감동

저녁 7시 30분, 만덕전에서 다도시간이 이어졌다. 직지사 다도회 회원 18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을 단풍으로 다상을 한껏 장식했다. 사방으로는 오미자, 식혜, 구절차, 연꽃차가 정 중앙에는 녹차가 준비됐다. 먼저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헌다의식이 진행되고 직지사 다도회 회원들은 큰 절로 이방인들을 환영했다. 갖을 쓴 꼬마 선비(동준·9살)가 스승을 찾아가 차를 다려올리며 가르침을 청하는 스승맞이 차례 시연에는 모든 참가자들의 시선이 고정됐다. 특히 스테판은 꼼짝도 않고 아빠의 무릎에 기대어 풀이저러라 쳐다본다. 포레 아기가 절을 올리고 차를 올리는 모습에 감동한 빛이 역력하다.

한국 불교와 문화, 다도와 다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다담시간이 끝나고 연꽃으로 장식된 컵초가 하나씩 주어졌다. 만덕전을 시작으로 대웅전을 지나 천불전 박물관 앞의 삼층석탑을 돌아 설법전으로 돌아오는 탐돌이가 이어졌다.

산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밤은 설법전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발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스토프, 인도네시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제드 다양, 필리핀)
나라와 모습은 다르지만 가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서원은 같았다.

“이렇게 좋은데 투자 안할 기업인 있을까요...허허”

29일 새벽3시, 어둠을 가르며 목탁소리에 잠을 깬다. 스님과 함께한 새벽예불, 처음 듣는 법고와 범종소리가 산사를 울리고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린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무엇인가’ 알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내가 누구냐(Who am I)?’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심해 보세요.”

직지사 천불선원장 정목 스님의 법문에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대나무비로 도량마당을 쓸어보기도 하고, 한국 불교와 문화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 만덕전에서 펼쳐진 탁본체험은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사업차 자주 한국에 왔지만 절에 온 건 처음이라는 나탈리(Elkhathi Nathalie, 49, 프랑스 사업가)는 “평화롭고, 자연경치가 너무 아름답다”며 감탄을 연발했다.

핸드폰에 사용되는 세라믹 핀을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스테판 아버지 아민 알버(Amin Alber, 독일)는 관련업체인 삼성에 관심이 많다. 발우 공양 때 ‘깨끗한 물을 받았으니 깨끗한 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정관 스님의 말에 감명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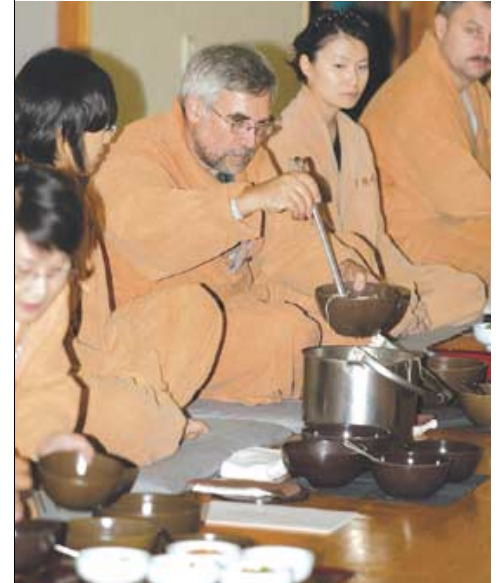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산업무역통상부에 근무하는 스토포(Sitopo 47)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교역과 산업투자 관련 업무를 띠고 한국에 왔다. 무슬림이라는 그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했는데, 참선 시간 스님이 같은 물음을 던져 남다른 감명을 받았다고 토로한다. 그는 “이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한 기업가들이라면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며 비그레 웃었다.

제드 다양(Ued Dayang)은 “차를 마시고 공양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것을 느꼈고, 한국문화를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글=배지선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새벽예불, 은은한 범종소리가 마음을 울린다.



가장 힘들었지만 신기했던 발우공양 체험.



진지하게 탐돌이를 하고 있는 모습.



마당을 쓸며 번뇌도 쓸고...



“잘 안되네...” 탁본하고 있는 참가자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11월 27일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출발

여행경비: ₩ 850,000원 (10명이상 출발)

일시	교통편	기간	일정
11월 27일	MU5042	07:00 09:05/11:30	인천 공항 모임 인천 출발 / 상해 도착 일시정부, 육불사 참관 호텔 휴식
11월 28일	고속버스	09:05/11:30	선원으로 보타산 이동 조음동, 보제사, 해제사, 남해 대불 참배 호텔 휴식
11월 29일	고속버스	13:30/16:00	선원으로 낙가산 이동, 낙가산 참배 선원으로 영파 이동 / 아유왕사, 천동사 순례 영주로 이동 / 호텔 휴식
11월 30일	전용버스		시호유림, 영오사, 육회암 참배 상해로 이동 / 호텔 휴식
12월 1일	MU5041	09:15/11:55	항공편으로 상해 출발 / 인천 도착

* 개인 경비 외에 모든 경비 포함

호우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워블사, 담겨사, 용악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공양석굴, 워역사, 연통사)
₩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79만원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시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